재선 노리는 이개호, "현역 물갈이" 여론의 벽 넘을까

■ 누가 뛰나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국민의당	무소속
이름	**이개호**	**김선우**	**정병걸**	**강형욱**
나이	56	50	67	61
약력	·현) 국회의원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	·전) 민주통합당 선대위 동반성장 특별위원회 조직위원장 ·전) 18대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국민특보	·전) 통합민주당 지역위원장 ·전)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연합회장	·전) 재경부재정정책 심의관 ·전) 한국투자공사 감사

더민주 7·30 재보선 81% 득표한 이개호 단독 출마
국민의당 김선우·정병걸 출마 선언 당내 경선 불가피
무소속 강형욱 서북전남발전연구원장 예비후보 등록

담양·함평·영광·장성 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의 재선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지난 2014년 7·30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 의원은 국민의당에 합류하지 않고 당에 남아 재선 고지 점령을 노리고 있다. 이 지역구는 더민주 이 의원에 맞서 국민의당 김선우·정병걸 예비후보와 무소속 강형욱 예비후보가 도전장을 내민 상태다.

이 지역구에선 더민주와 국민의당 후보 간 양자대결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지역구는 현재 더민주의 이 의원이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역 여론도 이 의원에게 다소 쏠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점 때문에 다른 지역구보다 총선 열기가 덜 하다는 평가도 있다.

다만 국민의당이 어느 후보를 내보느냐에 따라 결과는 다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더민주에 대한 지역민의 여론이 예전같지 않은 분위기에서 국민의당이 어떤 프레임을 갖고 선거운동에 임하느냐는 점도 지켜볼 대목이다.

현재 지역민심의 향배가 요동치는 상황에서 각 당의 정책이나 선거 프레임, 후보자 자질 등에 따라 표심이 갈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도로·다리 건설사업 등 SOC 사업과 지역경제활성화, 관광산업 확충 등 지역현안문제도 이번 총선에서 해당 지역구의 핫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 지역구의 경우 영광 출신 후보들이 많은 점을 감안하면 '각 후보들이 4개 군의 특성에 맞는 정책·공약을 균등하게 배분하느냐' 하는 점도 변수다. 자칫 지역 소외론이 일면서 후보자에 대한 반감이 표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9일 현재 더민주에선 이개호 의원 단 한 명만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상태다. 담양 출신인 이 의원은 전남도 행정부지사와 여수·목포 부시장, 전남도청 기획실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지난 2014년 7·30 재보궐선거에서 81.3%라는 전국 최고득표율로 당선됐다.

이후 이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부대표와 윤리심판원 부원장, 국회 예결특위 위원 등을 지내면서 당내 입지를 점차 다져가고 있다.

이 의원의 최대 장점은 행정과 정치를 두루 경험했다는 점이다. 특히 원칙과 정도를 지키면서도 합리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인물이라는 평가도 있다.

이 의원은 '지방의 미래. 농어업의 희망 찾기'에 전력을 쏟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 장성 잔디객토와 영광 전기자동차 기반구축 및 원전세 2배 인상, 함평 중고교 통폐합 등 해묵은 지역현안 해결에도 힘썼다고 주장한다.

특히 농어업 부문에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쌀 개방과 FTA 등 위기의 농어업 현실 앞에서 농어업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 의원 측에선 지방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원칙과 정도를 지키면서 '가슴 따뜻한 정치'를 통한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정치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의원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재선 고지는 만만치 않다. 당장 '반(反) 문재인' 정서로 대변되는 친노 패권주의에 대한 지역 민심의 반발이 거세다.

특히 광주를 비롯한 전남 민심의 현역 국회의원 교체 요구는 여전히 강하다. 또 더민주의 대안 정당으로 국민의당에 거는 지역민의 기대도 이 의원의 재선가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민의당**=국민의당에선 김선우 여의도컨설팅리서치 대표이사와 정병걸 전 통합민주당 지역위원장 등 2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섰다.

이 지역구에선 2명의 국민의당 후보가 출마를 선언하면서 당내 경선이 불가피한 상황. 이 의원에 비해 인지도가 다소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예비후보가 어떤 정책과 공약을 내놓느냐에 따라 지역 민심의 향배는 갈릴 것으로 보인다. 또 선거 프레임을 어떤 식으로 짜느냐 여부도 관심거리다.

영광 토박이인 김 후보는 (사)좋은이웃 중앙자문위원장과 서울문화홍보원 사무총장, 문재인 대통령후보 국민특보 등을 역임했다.

김 후보는 야권재편이 필요하다는 신념 아래 천정배 의원이 이끄는 국민회의에 참여했으나 양당이 합당을 선언하면서 자연스럽게 국민의당에 합류하게 됐다.

김 후보의 최대 장점은 언론·교육·복지·농업·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주변에선 정치의 때가 묻지 않은 그야말로 순수 신인 정치인이라는 평가가 많다.

김 후보는 이번 4·13 총선 공약으로 낙후하고 침체된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신영농화 사업 및 관광산업 추진, 중국 및 동남아 국가 투자유치 등을 제시했다.

김 후보 측에선 순수한 신인 정치인을 선발하기 위해서라도 공정한 경쟁과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당내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병걸 후보도 국민의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바닥을 다지고 있다.

영광 출신인 정 후보는 서울 호남향우연합회 부회장과 김대중 대통령 후보(을)선대위 부위원장, 18대 국회의원 예비후보, 통합민주당 동대문(을) 지역위원장, 노무현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정 후보는 이번 출마의 변에서 "저의 인생 모두를 고향의 경제발전과 농어촌 경제를 살리는데 바치고 싶다"면서 "지금도 그 때의 저처럼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 더 나아가 용기를 심어주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저의 열정과 전문성으로 영광·함평·장성·담양을 살맛나는 고향 땅으로 발전시키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무소속**=무소속 예비후보로는 강형욱 서북전남발전연구원장이 등록했다. 영광 출신인 강 후보는 재무부 행정사무관과 아세아개발은행(ADB) 자금부, 금융감독위원회 구조개혁기획단, 재정경제부 관세협력과장,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 부위원장, 재경부 재정정책심의관, 한국투자공사 감사 등을 역임했다.

주변에선 강 후보에 대해 경제정책 전문가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 강 후보의 최대 장점도 경제 부처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예산을 챙기는데 다소 유리하다는 점이다.

그는 이번 총선 출마의 변에서 "30년 경제부처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에 헌신하겠다는 뜻을 갖고 이번 총선에 출마하게 됐다"고 밝혔었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 영광·함평·장성 등 3개 군을 합병해 중규모의 광역자치단체로 전환하는 방안을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소규모 기초자치단체별 자치행정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준 광역단체로 재편하겠다는 뜻이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매우 열악한데, 중앙 정부에 의존하는 기존 체제에서 벗어나 해외펀드 등 외국기업 투자 유치 등 외자 도입을 적극 추진해 SOC 확충 및 대규모 관광단지를 개발해 주민소득을 증대시키겠다는 각오다.

또 기업투자 유치를 위한 투자인센티브 제공 등 지역 내 기업 투자 유치를 획기적으로 추진해 지역경제활성화를 꾀하겠다는 모토로 지역민심을 파고들고 있다.

새누리당도 광주의 모든 지역구에 후보를 낸다는 입장이지만 아직까지 예비후보는 등록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전남지역 선거구

■ 관전 포인트

더민주-국민의당 물러설 수 없는 총력전

담양·함평·영광·장성의 관전포인트는 더민주 이개호 의원의 재선 여부다.

이 의원은 일여다야 구도 등 야권 재편 속에서도 국민의당에 합류하지 않고 더민주에 남아 재선도전에 나선다는 점에서 관심이 높다.

이 의원이 재선 고지를 넘어선다면 당내 입지도 예전보다 더 굳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지역 일부 주류 현역 의원들이 더민주를 떠나 국민의당에 합류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재선 의원들의 역할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우선 이 의원은 더민주의 공천 여부가 관건이다.

더민주에서 단독 출마한 이 의원은 당내 공천을 자신하고 있지만 일각에선 이변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더민주가 이 의원을 공천한다면 국민의당은 총력전을 펼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구에서 우위를 점한다면 전남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국민의당과 더민주의 물러설 수 없는 한판 대결 결과는 전남의 미래 정치 지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더민주에 대한 반감 속에 국민의당의 여론 지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과 현역 물갈이 여론이 큰 점도 이 의원이 넘어야 할 산 중 하나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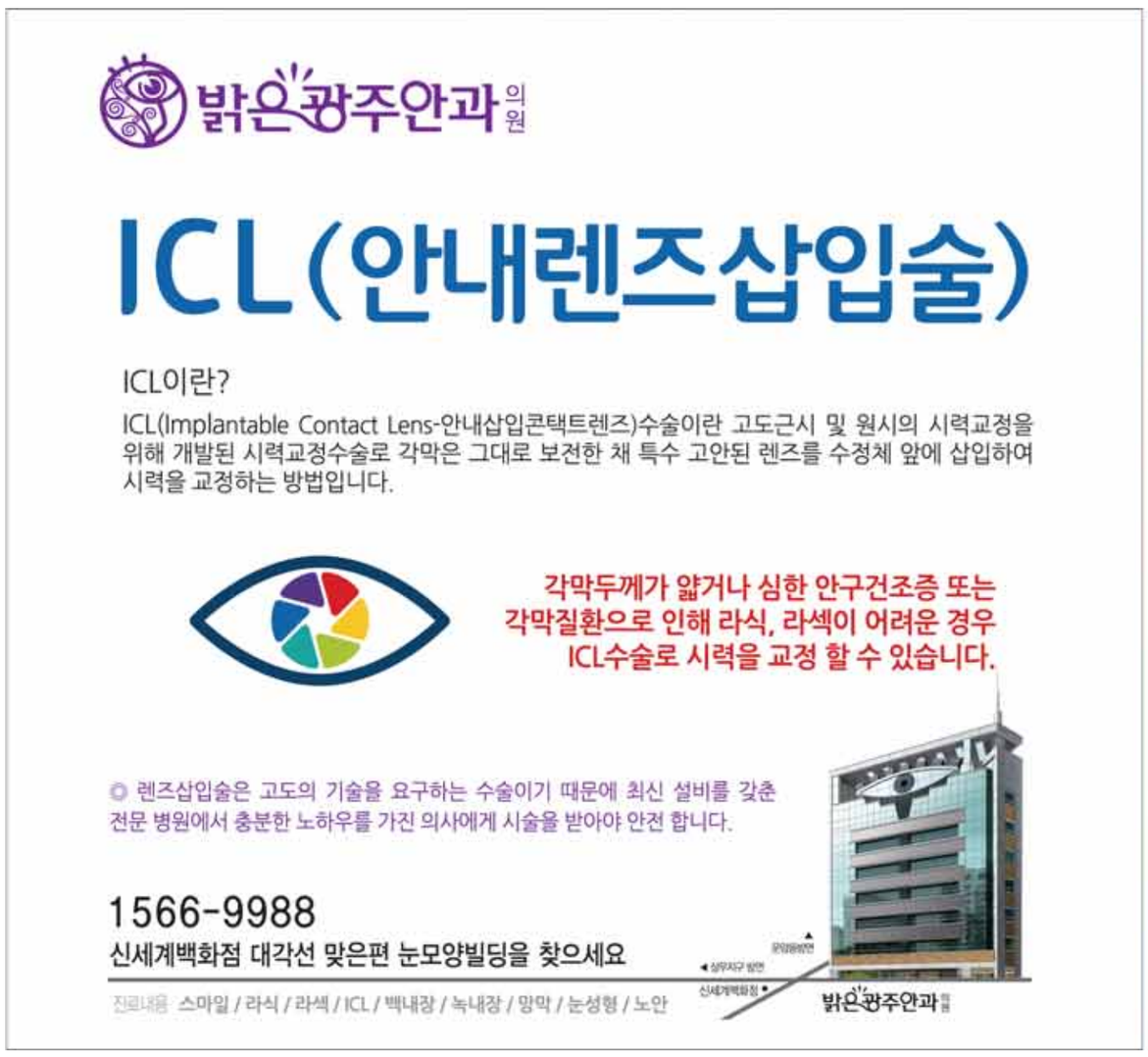
■ 선거구 특징

후보 3명 영광·1명 담양 출신… 함평·장성 표심 변수

담양·함평·영광·장성 선거구는 지역대결 구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특징이다. 8일 현재 예비후보는 모두 4명으로, 이중 3명은 영광 출신이며, 나머지 1명은 담양 출신이다. 지난해 10월 31일 현재 선거구 지역별 19세 이상 주민 수는 ▲담양 4만776명(총 인구 수 4만6887명) ▲함평 3만599명(〃 3만4834명) ▲영광 4만7322명(〃 5만6278명) ▲장성 3만9028명(〃 4만6169명) 등 모두 15만7725명이다.

영광 출신 후보들이 지역을 앞세워 표심을 나눠 가진다고 가정하면 담양 출신 후보에게 유리할 수 밖에 없는 구도다. 특히 함평·장성 표심을 어떤 식으로 공략하느냐 여부도 변수다. 그간 담양·영광 출신 후보들이 줄곧 국회의원에 당선되면서 함평·장성 지역민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큰 상황인데, 이 반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도 지켜볼 대목이다.

현재 이 지역구는 농어업지역으로, 기초자치단체간 개발 격차 해소 등이 지역현안으로 꼽히고 있다. 이 현안문제에 대한 해법제시도 지역 표심을 가르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 지역구는 지난 19대 총선 때 담양·함평·영광·장성으로 합해졌다. 18대 총선 땐 담양·곡성·구례와 함평·영광·장성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19대 총선 당시 국회의원은 이낙연 전남도지사로, 이 지사가 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면서 재보궐선거가 이뤄졌고, 이 의원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